

어렵고 좇같은 파이널 모의평가 1회 해설

〈필적확인란 출처〉
당신을 꺾으려면,
당신을 더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 「도쿄 구울」, 카네키 켄 -

어렵고 좇같은 파이널 모의평가 1회 빠른답지									
1	④	2	③	3	②	4	⑤	5	③
6	②	7	⑤	8	④	9	①	10	④
11	①	12	①	13	②	14	③	15	③
16	②	17	④	18	①	19	④	20	②
21	②	22	③	23	②	24	④	25	④
26	⑤	27	②	28	①	29	⑤	30	⑤
31	④	32	④	33	③	34	⑤		
화법과 작문								35	⑤
36	③	37	⑤	38	③	39	③	40	⑤
41	④	42	⑤	43	①	44	①	45	③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⑤	37	③	38	⑤	39	④	40	④
41	④	42	①	43	②	44	②	45	①

해설 읽는법

연계

연계 여부와 함께 어느 지문 연계인지 표시했습니다. 비연계는 비연계라고 명시했습니다.

같이 보기

소재, 작품, 문항 논리, 정답 결정 논리가 유사한 기출을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언급했습니다.

해명문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이 개빱칠만한 부분에서 여러분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한 해명입니다.

원문 참고

출제에 참고한 원문이나, 아예 발췌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정답 해설

오답 해설

정답과 오답의 해설입니다. 위의 #표시는 해당 문항의 키워드를 담았습니다. 제가 출제한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거의 그대로 담으려 노력했고, 우리 팀원이 출제한 문제는 제가 바라본 관점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맞은 문제도 꼭 해설을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문학]

[1~3] 도해 조직자 (독서론)

연계 비연계

원문 참고 박철현. "도해조직자를 활용한 지도가 실업계 고등학생의 읽기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전라남도

같이 보기 2023 6평 <비타민 K>

1. ④ #인과

정답 해설

④ 지문 2문단에 따르면 미시 구조와 거시 구조는 서로 상대적 개념어서 순환적 성격을 갖는다.

오답 해설

- ① 구조 표지어는 글의 내용이 아닌 형식과 관련된다. 지문에 따르면 구조 표지어는 화제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지 않는다.
- ② 인과 관계의 순서가 뒤바뀌어있다. 글을 읽을 때는 문장부터 읽기 시작하므로, 미시구조와 거시구조를 파악한 후, 이를 근거로 최상위 구조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 선지는 2023학년도 6평 비타민 K 지문의 선지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 ③ 1문단에 따르면 글의 내적 의미 관계, 즉 정보의 구조는 선형적이지 않고 비선형적이다.
- ⑤ 4문단에 마지막 줄에 따르면 독자는 구조 표지어를 파악하여 글의 구조를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맥락상 '글의 구조'는 지식의 구조를 의미하며, 이를 파악하는 것은 도해 조직자의 내용을 채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③ #훈제청어

정답 해설

③ 제시문의 ㉓는 인과 관계로, 기름 유출의 결과 피해를 보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본문의 ㉑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제시문의 ㉔는 기름 유출의 원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유조선이 기름을 운반하는 것은 단순히 기름 유출이 나타나는 상황일 뿐, 그것을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마치 "그가 범죄를

저지른 원인은 그가 태어났기 때문이다."와 같은 표현이며, 우리의 직관과 반하는 설명이다.

- ② 제시문의 ㉖는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할 뿐이다. 이들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 ④ 제시문의 ㉕는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지 기름 유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아니다.
- ⑤ 제시문의 ㉔는 기름 유출 이후의 대처 방법을 제시한 것은 맞으나, 하나만 제시했으므로 나열이라고 볼 수 없다.

3. ② #매핑 #범주

정답 해설

② <보기> 초반부의 학생들을 나누면, 결국 독해 능력이 향상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뉜다. 흥미 부진은 후자의 속성이지 전자의 속성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본문 4문단에 도해 조직자는 개념관의 관계를 묘사하는 시각적 도구이다. <보기>의 학생들은 이를 이용하여 배경 지식을 정리했다.
- ③ <보기>의 일부 학생들은 구조 표지어 찾기를 전략을 도입하기 전에도 글의 내용을 성공적으로 이해했다.
- ④ <보기>의 일부 학생들은 독해 능력이 향상되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오히려 지문 이해에 방해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 ⑤ <보기>의 결론부에 해당한다.

[4~9] 일본의 군주제 (역사학, 정치학)

연계 수능특강 102p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과 즉위식>

원문 참고 (가) 白雲龍. "일본 천황제의 역사적 변모 과정에 관한 연구 - 천황제의 성격변화와 관련하여 -." 동북아 문화연구 1.13 (2007): 399-421. (나) 김태진. "오코토바를 통해 다시 묻는 '상징'의 의미: 헤이세이 시대 천황의 이중성." 일본비평 -.30 (2024): 50-81.

같이 보기 2013 LEET <조선의 수령 형성 과정>

2012 MD/PEET <스팸 메일 규제>

2008 MD <세종의 정삭조하의>

해명문

지문의 표현 ‘덴노’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일본의 군주는 한자로 天皇이라고 쓰고, 일본어로 てんのう, 즉 덴노라고 읽습니다. ‘덴노’는 일본어 독음이고, ‘천황’은 한국어 독음입니다. 사실 출제 초안에서는 천황이라는 표기를 사용했으나,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언론에서는 ‘천황’보다 ‘일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역사적 감정을 빼고 논의하더라도, 사실 이는 썩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왕’과 ‘황제’는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군주국인데, 현재도 ‘왕’이라는 칭호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황위 계승 서열 1순위인 후미히토는 공식 명칭이 “친왕(親王)”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군주를 단순히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개념일 수 있습니다. (지문 초안에는 ~왕이라는 칭호가 들어간 인물이 지문에 있었습니다. 비록 수정 과정에서 빠졌지만, 굳이 부적절한 호칭을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절충적으로 ‘덴노’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문의 표현은 이원복 교수님의 ‘먼나라 이웃나라’ 책에서의 의견을 빌렸습니다. 이집트의 군주를 파라오라고 부르고, 러시아의 군주를 차르라고 부르는 것처럼, 원어를 존중해서 일본의 군주를 ‘덴노’라고 부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4. ⑤ #일상언어

정답 해설

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논쟁은 덴노의 존재와 민주주의간의 충돌과 조화를 논하는 자리였을 뿐, 그 괴리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 ‘해소’는 완전히 사라졌을 때 사용 가능한 말이다. 2013 LEET 조선의 수령 형성 과정 지문과 2012 MDP 스팸 메일 규제 지문의 선지 아이디어를 참고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덴노의 전국 지배는 1300여년 전 다이카 개신부터임을 알 수 있다.
- ② (가)에 따르면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등이 일본 역사에 존재했다. 또한 막부 체제가 끝난 이후 근대화 시기에 이르러 천황제에는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나)에 따르면 메이지 헌법은 영국과 미국의 영향, 특히 GHQ의 명령에 의해 현행 평화헌법으로 개정되었다. 지문에 나타난 인명으로는 더글러스 맥아더와 리터드 풀이 있다.

- ④ (가)에 따르면 가마쿠라 막부의 멸망 이후 남북조시대(난보쿠초 시대)가 이어졌다. 이 시기 일본 열도에는 두 명의 덴노가 존재했다.

5. ③ #양/질

정답 해설

③ (가)의 5문단에 따르면 에도 막부에 이르러 ‘덴노’에게 충성하는 봉건적 질서가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탄생’은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경우에만 쓸 수 있으므로, 이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1문단과 2문단에 따르면 나라 시대에는 덴노가 일본의 직접 통치자였지만, 헤이안 시대 중엽에 이르러 덴노의 권위와 실제적 권력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정치의 오랜 전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신국사상이나 황실송배를 ‘부활’시켰다. 부활은 없었던 것이 탄생하는 것이므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확대는 존재하는 것이 양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에, 질적으로 없던 것이 생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 ④ (가)의 5문단의 ‘탄생’이라는 표현에서 4문단의 아시카가 요시미츠 대에서는 덴노에 충성하는 봉건적 질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순수한 봉건권력자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서술은 적절하다.
- ⑤ (가)는 역사의 주요 사건들 간의 관계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덴노의 세속적 권력이 일본 근대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제한되어 왔다고 단정적으로 추론할 수 없다. 참고로, 지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헤이안시대 이후에 잠시 덴노에게 실권이 있었던 적이 있으며, 메이지 헌법 시기에도 이에 해당한다.

6. ② #매핑

정답 해설

② (나)에 따르면 현행 일본의 군주제는 상징군주제이다. 평화헌법상 군주는 정치 개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면 상징군주제를

어기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직무에 관해 생각'했다는 것은 상징군주제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나)의 1문단 하단에서 이 해석이 적절함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제시문의 내용에서 아키히토 덴노는 생전 퇴위 의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 정치계 특유의 돌려 말하는 화법(훈네/타테마에)의 개념을 알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④ 단순히 '상징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은 문제의 제기일 뿐 적극적인 수정 요청으로 볼 수 없다. (나)의 맥락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 ⑤ 선지의 표현 '권위와 권력'은 (나)의 2문단에서 발췌된 것이다. 해당 부분에서 권위와 권력의 이분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아울러 선지의 전제 '정치적 논란이 발생'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는 권위와 권력의 이분법을 막연히 든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⑤ #배경지식

정답 해설

- 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상징으로서의 덴노를 설명하는 논의에는 일본 국내의 연원도 갖는다. 이 때문에 일본 이외의 국가(영국,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참고로, 배경지식이 있으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다이쇼 시대이고, 패전 이후 평화헌법 제정은 쇼와 시대이다. 이후에 발생한 미국의 입장이 시간적으로 앞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답 해설

- ① ㉞은 '성'과 '속'을 모두 추구했다. 그런데 ㉟ 집권 시기에도 여전히 '성'은 덴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㉞은 '속'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원화된 모습이라는 것이 적절하다.
- ② (나)에 따르면 미국 GHQ는 일본을 통치하기 쉽게 하려는 수단으로 덴노의 직을 유지시켰다. 참고로, 실제로 이 때문에 GHQ와 더글러스 맥아더는 쇼와 덴노에게 인간선언 이외의 것을 강요

하지 않았고, 개전 책임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 통설이다.

- ③ ㉞의 '성'과 '속'은 각각 영국 군주제의 '권위'와 '권력'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 ④ ㉞은 덴노를 오직 정부 지배의 정당화 수단으로만 이용했다. 이는 GHQ가 일본 통치를 위해 덴노를 이용한 모습과 유사하다.

8. ④ #A의B

정답 해설

- ④ (가)의 마지막 문단 하단과 (나)에 따르면 근대화 시기, 즉 메이지 헌법 시기에 덴노는 실질적 권한, 즉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덴노는 일관되게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평화헌법 개정은 '통치자이자 상징에서 단순 상징으로' 변화한 것이지, '통치자에서 상징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 따르면 고대에는 덴노의 성스러운 권위와 속된 권력이 일원화되었고, 분화가 일어난 후에도 덴노는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 ② <보기>의 맥락에 따르면 묘사적 대표는 대표되는 자의 동의 또는 선거와 같은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 이는 "후자의 경우~" 부분에서 반대추론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단순히 전쟁이나 투쟁 승리의 결과 권력을 쥐게 된 막부의 쇼군이 묘사적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③ 덴노는 상징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 담론을 구성하고, (지문에 이 부분은 생략되었지만) 일종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이는 쇼와 덴노까지의 전통을 여기는 다소 파격적이기까지 한 행보이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욕망을 재현하는 것이다.
- ⑤ (나)의 1문단에 해당하는 선지이다. 아키히토 덴노의 발표는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여전히 정치적이고, 2문단의 영국 사례에서도 민주 국가에서 군주는 여전히 정치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제시된다.

9. ① #언어추리

정답 해설

- ① 지문의 '구축'과 이 선지의 '구축'은 모두 '몰아낸 다'는 의미로 쓰였다. 그레삼의 법칙 "악화가 양

본적으로 별도의 흑연 감속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문 맥락상 RBMK에서 흑연 감속재의 감속은 핵분열을 위해 필수적인 감속이고, 물의 추가적 감속은 핵분열을 방해하는 추가적인 감속이다. 만약 흑연 없이 물만을 감속재로 사용하면, 정상작동 상황에서 물의 감속은 RBMK에서 흑연이 담당하던 필수적 감속을 담당하게 된다. 이 경우 물이 증발하여 줄어들면 필수적 감속이 일어나지 않아 원자로의 반응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사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서방권(한국, 일본 등 포함)의 원자로의 일반적 특징이다. 이들 원자로는 음의 보이드계수(negative void coefficient)를 갖는다고 하며, 이를 원자로의 고유안정성이라고 한다.

오답 해설

- ㄴ. 물은 핵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핵반응 결과 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구조적인 불안정성이다. 물이 줄어들면 오히려 구조적인 불안정성의 폐해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적어도 이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 ㄷ. 이 구조적인 불안정성은 우라늄과는 무관하다. 위에 언급된 중수로나 경수로에도 우라늄은 사용된다. 우라늄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이 문제와 무관하다.

13. ② #관계 #상하

정답 해설

② (나)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고 당시 제어봉 하단의 흑연 감속재는 노심의 상부와 닿아 있었다. 그런데 이를 하강시킨 것은 대폭발의 원인이 되었다. 반응을 위해서는 중성자가 필요한데, ㉠에 따르면 그 분포가 불균형적이었다고 한다. 중성자에 감속재가 작용하면 핵분열이 촉진된다는 점에서, 위치적으로 노심의 상단보다 하단에 많은 양의 중성자가 축적되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오답 해설

①, ③ 지문에 따르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원자로의 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제논 분포를 불균형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지문에 따르면 원자로의 제어봉을 뺐지만 낮아진 출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가)를 근거로 이 상황

이 제논-135의 축적에 따른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제논-135의 농도가 평시보다 높았기 때문에 중성자를 더 많이 흡수했고, 핵분열이 방해되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 속도가 제논-135의 붕괴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

④ (나)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참고로 체르노빌 원전의 제어봉 구조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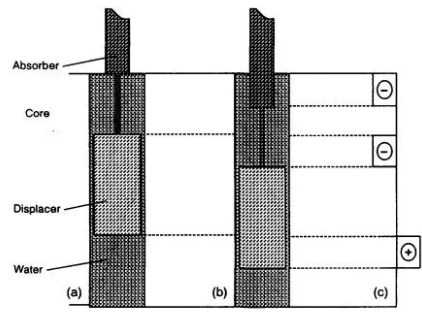


FIG. II-10. The RBMK reactor: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reactivity insertion caused by inserting the RCPS rods from the top position. (a) Manual control rod withdrawn; (b) manual control rod partially inserted; (c) the change in the theoretical reactivity insertion Δk_{∞} as the rod is inserted.

이 상황을 나무위키에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엑셀과 연결되어 브레이크를 밟아도 엑셀이 먼저 작동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⑤ (다)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14~17] 동맹이론 (사회학, 정치외교학)

연계 수능특강 285p <집단 행동의 논리>

같이 보기 2025 수능 <개화>

2026 9월 <SF>

2017 수능 <과인과 포퍼>

14. ③ #추가삭제

정답 해설

③ 3문단에 따르면 편승이론은 단기적 성과를 챙기는 이론이다. 단기적 성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 따르면 편승이론은 약소국 입장에서 편승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국가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 ② 2문단에 따르면 세력균형론에서 제시하는 약소국의 선택지 중에는 동맹체결이 존재한다.
- ④ 5문단에 따르면 위협균형론은 국가들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전략을 선택한다. 균형 전략에는 내적 균형 전략이 있으므로, 자국의 역량 강화도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이다.

- ⑤ 1문단에 따르면 동맹이론은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이 여러 가지 보상을 얻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거나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력균형론과 편승이론은 모두 동맹이론이므로, 그러한 속성을 상속받을 것이다.

15. ③ #비교

정답 해설

- ③ 3문단에 따르면 편승이론은 약소국이 강대국의 편에 서서 생존 보장이나 이익 확보를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편 2문단에 따르면 세력균형론은 약소국이 자국 역량을 강화하는 내적 균형 전략이나 동맹 및 협력을 통한 외적 균형 전략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오답 해설

- ① 이 선지의 진술은 동맹이론의 일반적인 논의영역에 해당한다. 때문에 편승이론과 ‘달리’라고 말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선지의 진술은 세력균형론의 한계점이라는 맥락과도 맞지 않는 선지이다. 즉, ①이 아니라는 것이다.
- ② 원치 않는 내적균형 전략의 선택은 이중 버림 위험과 무관하다. 2문단에 따르면 내적균형 전략은 자국의 역량을 강화하여 강대국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한편 4문단에 따르면 이중 버림 위험은 강대국이 비용 부담이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로 인해 동맹국을 버리는 현상이다. 이 경우에 항상 원치 않는 내적균형 전략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 내적균형 전략을 선택한 것이 항상 이중 버림 위험에 따른 것도 아니므로, 일반성을 갖는 진술로 이중 버림 위험을 “원치 않는 내적균형 전략을 취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서술할 수 없다.
- ④ 5문단에 따르면 세력균형론과 편승이론은 위협균형론에 의해 단점이 보완되었다. 즉, 새로운 이론이 제기되어 대체된 것이므로, 그 이론들 각각이 수정된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했다고 볼 수 없다.
- ⑤ 장기적 생존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은 이론은 편승이론이다. 세력균형론에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다.

16. ② #인식 #주체 #필요충분

정답 해설

- ② <보기>에 따르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미국 등의 다른 강대국과 협력해 소련의 힘을 견제하고자 했다. 이 부분의 주어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며, 협력의 시도는 그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선택에 의존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 따르면 세력균형론은 국제관계에서 특정 국가가 압도적인 패권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기>의 NATO 결성은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서유럽권까지 압도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 국가들 및 미국이 동맹을 맺은 것이다. (북대서양이라는 이름에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편승이론은 약소국이 패권국에 편승하여 단기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보기>에 따르면 소련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통해 바르샤바 조약 기구 가입을 유도했다.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에 따라 단기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5문단에 따르면 위협균형론은 균형 전략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강대국의 압박에 다른 국가와의 동맹(NATO)에 참여하려 했다는 점에서 위협균형론은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끌려감 보복 현상은 강대국의 편에 섰으나 이 때문에 ‘역으로’ 원치 않는 보복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다. <보기>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편에 서지 않았고, NATO 가입 역시 자발적으로 요청하였다. 이 때문에 <보기>의 사례는 편승한 사례도 아니고, 끌려감 보복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17. ④ #요건

정답 해설

- ④ 지문의 ‘맺다’는 여러 대상들이 참여하는 행위이다. 이 선지의 부부의 인연 역시 두 명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②③⑤ 모두 단일 대상의 행위를 서술한다.

[문학]

[18~22] (가) 초한가 (고전시가) (나) 여장계곡서 (고전수필)

연계 수능특강 70p <초한가>

수능완성 142p <여장계곡서>

같이 보기 2010 PEET 예시문항 <남한산성>

18. ① #일상언어

정답 해설

① (가)는 도입부에 ‘만고영웅 호걸들아’로 청자를 설정하고 있으며, ‘절인지용 부질없고 순민심이 으뜸’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가)는 잡가(좌창)로, 관객들에게 공연하는 상황이다. 수능특강 사용설명서에서는 청자 ‘만고영웅 호걸들’을 ‘관객’으로 볼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청자가 설정되었고, 청자가 실제로 발화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대화이다. 간혹 대답이 있어야 대화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개념이다. 대답이 없어도 대화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지 않았다. 또한 청자와 위기에 처한 대상을 비교하는 장면도 제시되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내용 전개 중 ‘군사들’을 호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해당 내용 부분 역시 청자가 위기에 처한 대상일 뿐이다.
- ③ (가)의 화자는 두 가지 세태(한나라와 초나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둘을 모두 근거로 하여 절인지용 부질없고 순민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다층적 시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④ (나)에는 의인화된 관념이 드러나지 않았고, 정서 변화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나)에는 유사한 통사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필자가 제시한 대안의 우월함을 부각하고 있는지는 조금 애매하다. 기본적으로 척화론과 화친론의 대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그렇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일단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기도 하다. 사실 수정할까 생각도 했는데, 확실한 곳에서 선지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애매한 부분을 남겨놓았다. (참고로, 이 선지를 최초 출제하신 분은 우월함을 부각하는 부분도 없다는 의도로 출제하시긴 했다.)

19. ④ #시제 #이항대립

정답 해설

④ (가)의 ‘망부석’은 집을 나간 연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빚댄 소재로,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산에 올라 연인(군사로 나간 사람)을 기다리지만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을 맥락상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비극적인 모습이다. 한편, (나)의 ‘이는 불행 중 다행’은 화친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다.

오답 해설

- ①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가)에는 죽음의 불가피성이 나타난다. 초패왕은 (그것이 비록 자신의 잘못된 군사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일지언정) 죽을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았다.
- ② (가)의 처자가 독수공방에 있게 된 이유는 군사로 나간 연인이 돌아오지 않아서이지, 그가 죽어서가 아니다.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더라도, (가)의 해당 부분은 불가피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느껴지는 안타까움에 가깝지, 실제로 죽었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나)의 ‘재조의 은덕’은 과거에 입은 은혜를 의미할 뿐이다. 이 역시 죽음이 미치는 영향으로는 볼 수 없다. 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 ③ (가)의 ‘호생오사하는 마음’을 죽음이 삶에 부여하는 의미로 볼 것인지는 애매하다. 일단 수능특강은 73p에서 실존주의를 근거로 하여 이러한 해석을 제시하긴 했다. 애매한 부분은 넘어가고, (나)에 대한 서술에서 정오판단을 하면 된다. 척화를 정론으로 삼는 것은 지문의 이항대립상 ‘죽음’에 대응되는데, (나)의 필자는 그것보다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추가로, 해설을 쓰다가 “죽음을 얻으면 척화를 정론으로 삼는 것 역시 얻으므로 맞바꾼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문제를 풀까봐 하나만 첨언하자면, 죽음과 맞바꾼다는 표현 자체는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복어의 맛

은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맛'이라는 표현을 어른들이 쓰는 것을 종종 본다.(일단 내 아빠는 쓰신다.) '죽음' 자체가 부정적 표현이므로, 해당 선지 발문에서 '맞바꾼다'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취할 만 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⑤ (가)의 초나라 장졸들은 죽을 운명이라는 점에서, 평생의 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모습은 죽음의 불가피성에 따른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김상헌 역시 결과적으로 죽지 않았다. 죽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택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부터 죽음의 불가피성을 넘어서려 한다는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은 비약이다.

20. ② #내적갈등 #언어추리

정답 해설

- ② 우선 주체가 한왕이 아니므로 틀렸다. 추가적으로, 한왕을 초패왕으로 바꿔도 선지판단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수능특강 사용설명서에서는 해당 부분을 '죽더라도 항복할 생각이 없는 초패왕의 속마음을 환기'한다고 해설한다. 우선 (가)의 상황에서 초패왕이 죽을 상황임은 알 수 있다. 바로 위의 ㉠에서 초패왕과 대적하는 한왕은 항복하면 죽이지 않을 것이지만, 초패왕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의문의 표현으로 진술된다는 점에서 이를 추측할 수 있다. 내적 갈등(inner conflict)의 정의는 딜레마인데, 초패왕은 죽음을 각오한 상태이므로 내적 갈등이 없다. 참고로, 단순히 초패왕이 괴로운 상황이므로 내적 갈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안된다. 내적 갈등과 괴로움은 교차 관계일 뿐이며, 괴로움은 내적 갈등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견우와 직녀는 일년에 한번이라도 볼 수 있지만, 초나라 장졸들은 그마저도 할 수 없다. 이는 초나라 장군들의 상황이 암울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의 의미를 텍스트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다만 '생전'이라는 표현에서 그것이 회고적임을 추측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수필이기 때문에 필자의 심정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겨집니다' 부분까지 고려하면 이는 더욱 확실해진다. 애매성은 있지만 정오판단은 가능한 선

지이다. 참고로, 사실 표현 애형 자체가 한자 衰 冃인데, 이는 상중에 있는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이 표현은 상을 당한 친구의 아픔을 위로하는 표현이다. 수능완성 사용설명서의 해석을 참조했다.

- ④ 역시 ㉠의 고사의 의미를 주어진 텍스트만으로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어추리의 시간이다. '면치 못하였다'는 표현에 주목하면, 그것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백이 양을 끌고 간 탄식'은 부정적인 대상이다. 참고로, 수능완성에서는 정백이 양을 끌고 간 탄식의 뜻이 나온다. 춘추 시대 정나라 양공이 초나라 군대에 석 달 동안 포위당하자 직접 양을 끌고 가 초나라 장왕에게 사죄하고 강화를 청한 사건이라고 한다.
- ⑤ '종사를 보존하고 평안하게 환도한 것'은 사건에 대한 최명길의 주관적인 해석이다. 이후 필자는 김성헌과 정은이 '문안조차 않고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21. ② #수단/목적

정답 해설

- ② 필자는 '퍼런 칼날을 밟을 수는 있지만 중용은 능히 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둘은 대립적이지 인과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사실 '피해가 없다'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 '중도'는 맥락상 화친인데, 화친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비약적이다. 이미 나라는 존망의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필자는 척화보다 화친이 낫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피해가 '적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이 추론까지는 다소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는 추론일 수 있다. 수험생이라면 앞에서 선지판단하고 넘어가면 된다.

오답 해설

- ① 여전히 최명길에게 정론은 척화이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를 수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선지에서 의미하는 '충'은 결국 임금에 대한 충성이며, 필자는 이를 중요시하고 있다.
- ③ 본문의 표현 '이럴진대 ~ 부합합니다.'에서 파악할 수 있다.
- ④ 필자는 3문단에서 정론은 척화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키지는 않는다.
- ⑤ 2문단서 필자는 김상헌과 정은의 선택을 비판의

어조로 기술한다. 이 부분에서 필자가 ‘중사를 보 존하고 평안하게 환도한 것을 문안하는 것은 수 행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2. ③ #선후

정답 해설

- ㄱ. 최명길은 여전히 명나라를 숭상하고, ‘중국 조정’은 명나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나)의 ‘이럴진대 ~ 부합합니다.’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제시문의 필자 역시 ‘명분과 의리가 지극히 중대’한다는 표현에서 명나라를 ‘중국’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ㄴ. 이항대립 ‘명분/실리’에서 명분은 척화론에, 실리는 화친론에 해당한다. 이는 제시문의 ‘명분과 의리가 지극히 중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으며, 제시문의 필자는 이에 동의할 것이다. 한편, 최명길 역시 명분의 중요성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답 해설

- ㄷ. 이 선지가 의미하는 시간적 순서는 ‘임금과 나라를 보전’하는 것이 먼저이고, ‘바른 도를 보전’하는 것이 이후이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임금과 나라’는 보전되었다. 또, 최명길은 (나)의 4문단에서 ‘명나라를 위해 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 역시 바른 도를 보전하는, 즉 ‘의리에 당당하고 선현의 가르침과 부합하는’ 선택임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최명길은 이 선지에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제시문의 필자는 ‘바른 도를 보전’하면 일이 바르게 풀리고, 그러면 백성의 마음이 기쁘고, 그러면 나라의 근본이 든든해진다고 주장한다. 즉, 바른 도를 보전하면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때문에 제시문의 필자의 입장에서 이 선지 표현은 선후관계가 뒤바뀐 표현이다.

[23~26] 장끼전 (고전소설)

연계 수능완성 145p <장끼전>

23. ② #문학개념

정답 해설

- ② 상단부의 외양 묘사 장면에 해당한다. ‘대장부와 다를쏜가?’와 같은 표현은 서술자의 주관적 감상이다.

오답 해설

- ① 인물 간 관계는 역전되지 않았다. 참고로, 수능완성 사용설명서에서는 오히려 가부장인 장끼가 아내인 까투리의 말을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 ③ 현재와 과거의 교차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꿈을 언급한 부분에서 헛갈릴 수 있는데, 과거에 경험한 사건이라고 보기 다소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인물이 자신의 말로 과거를 전달하는 것은 교차 구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인물의 회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역시 꿈을 언급한 장면을 회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꿈이 인물의 과거 경험이나 애매하니 넘어가더라도, 등장인물의 대사로 다른 등장인물에게 전달하는 대화는 회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를 통해서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도 없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는 마지막 문장 ‘비위맥이 움직이고 중맥이 점차 없어지고...’에 나타난다. 수능완성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논쟁이 끝나고 장끼가 죽어가는 장면이므로, 논쟁이 벌어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24. ④ #정서 #태도 #일상언어

정답 해설

- ④ 중략 이후 부분에서 까투리는 ‘내가 한 말 들었으면 저런 변을 당할쏜가?’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장끼는 ‘네 탓 내 탓 부질 없다’며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수능완성 사용설명서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까투리의 원망에 대한 장끼의 비난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오답 해설

- ① 지문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선지이다. 오히려 음식에 대해 ‘한 번 배불리 먹는 것도 내 운수에 달려 있’다고 한 부분에서 평상시에 배불리 먹지 못했음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까투리는 장끼를 살릴 방법을 알아보지 않았다. 알지 못하므로 의심을 품을 수도 없다.

- ③ 장끼는 여전히 자신이 죽게 된 것이 자신 때문임을 인정한다. ‘미련을 두면 좋은 기회를 잃게 된’다고 하며 스스로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그것이 원인을 까투리에게 돌리는 것은 아니다.
- ⑤ 맥락상 장끼와 까투리는 이전부터 알던 사이이다. 첫 문단 하단부에 ‘열두 딸 아홉 아들 스물하나 자식들’에서 둘이 부부 사이임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로, 실제로 부부 사이이다. 26번의 <보기>에도 제시된 내용이다.

25. ④ #의사소통 #인식론

정답 해설

- ④ ㉔에서 해몽의 대상이 된 꿈은 바로 앞 발화에 나타난 ‘이경 초’에 꾀 꿈이다. 인식 대상이 같아도 인식 주체가 달라지면 인식의 결과도 달라진다.

오답 해설

- ① 자취를 비로 활활 쓸어 버린 듯 하고 입으로 활활 분 듯 한다는 표현에서 주위에 흔적이 오히려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장끼의 이어지는 발언 ‘사람의 자취, 어디 있을쏜가?’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빗자루로 쓴 흔적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선지의 ‘공을 사람이 놓은 흔적’ 때문에 정답 선지는 될 수 없다.
- ② 선지의 ‘이전 까투리의 발언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는 공 주변의 자취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까투리의 인식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사람의 자취가 없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 ③ ㉔의 해석의 대상은 장끼가 꾀 꿈이 아니라 까투리가 꾀 꿈이다. ㉔의 앞에서 까투리는 ‘그 꿈이야 좋거니와’라는 말로 장끼의 꿈이 길몽일 수 있음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 ⑤ 까투리가 장끼의 해몽에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㉔에서 나열되는 꿈은 장끼가 해석한 꿈의 뒷부분이 아닌 별개의 꿈이다.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여 제시하는지는 문장 표현이 애매하여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앞부분으로 선지판단이 가능하므로 의도적으로 애매함을 남겨두었다.

26. ⑤ #이항대립

정답 해설

- ⑤ 본문의 ‘고량진미’와 ‘공 한 낱’은 차이가 없다. 공을 먹으며 ‘알알이 공을 주워 먹으니 인간의 고량진미를 바라지 않는도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작품이 쓰여진 시대의 욕망이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잘못되었다. <보기>는 생존 수단인 공을 자기합리화로 사용하는 모습이 현실감 없는 허세임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장끼는 욕망을 자기합리화하여 공을 먹었고 이 때문에 죽게 되었다.
- ② <보기>에 따르면 장끼 부부의 대화는 변하지 않는 초월성을 보여 준다. 허영심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 ③ <보기>에 따르면 서술자는 일관되게 장끼를 하대한다. 지문에서는 ‘장끼란 놈’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는 비판의 의도를 가진다는 사실 역시 <보기>에 나타난다.
- ④ 장끼의 이항대립을 묻는 선지이다. ‘생존/생존 이상의 욕망’의 이항대립을 생각하자. 장끼는 생존 이상의 욕망을 중시해 생존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과거 급제와 공은 생존 이상의 욕망에 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생존보다 과거 급제와 공을 중시했을 것이라는 해석은 적절하다.

[27~31] (가) 판문점 (현대소설) (나) 오장군의 발톱 (희곡)

연계 수능특강 171p <판문점>

수능완성 78p <오장군의 발톱>

같이 보기 2007 MD <현대 연극>

2008 MD <안개>

27. ② #일상언어

정답 해설

- ② 본문에 차이코프스키나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제시되긴 하지만, 그것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다. 2026 9평 문제를 활용했다. 이와 더불어, ‘인용’ 자체도 문제가 된다. 그 둘을 소재로 하여 갈등과 대립이 나타날 뿐이다.

오답 해설

- ① 인물간의 대화는 명백하며, 이념의 갈등은 앞부분의 줄거리에 제시된 내용이다.
- ③ 판문점은 분단의 현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상언어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다.

- ④ 본문의 여기자와 진수의 말투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야요’와 같은 이질적인 말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언어적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분단에 따른 소통의 부재가 이어지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 ⑤ 반복적인 어휘 사용이 나타난다. ‘씩어 빠진’, ‘당신들’과 같은 어휘는 반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논쟁이 심화되고 확신이 드러난다.

28. ① #형식논리학

정답 해설

- ① 여기자는 ‘자유의 진가는 그 사회 나름의 일정한 도덕적 규범과 인간적 품위가 결부가 되어서 비로소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참고로, ②번 선지와 함께 비교해 보자.

오답 해설

- ② ㉓와 ㉔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무관하게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①번 선지와 경쟁하는 선지이다.
- ③ 여기자는 ‘자기가 없이 이념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념 → 자기”란 뜻이다. 한편, 그 이후 ‘자기는 이념에 밀받침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자기 → 이념”이다. 즉, 둘은 필요충분조건 관계에 있다.
- ④ 사회 전체가 특수한 ㉔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진수의 의견이 아닌 여기자의 의견이다.
- ⑤ 진수는 ‘놀고 먹고 적당히 나쁜 짓 하고 싶은 자유란 최고봉’이라고 주장했다.

29. ⑤ #인식

정답 해설

- ⑤ 사령관은 오장군의 진정한 정체를 뒤늦게 깨달았다고 생각하여 ‘이제 연기는 그만 하지’와 같이 말했고, ‘사령부 전 장병을 집합’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일종의 경외감으로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두려움을 전제하는 경외감으로 보는 것 역시 가능하다.

오답 해설

- ① 오장군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결국’ 밝히지 않

다. 또, ‘기억을 잃어’ 거짓 진술을 하는 장면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참고로, 오장군이 거짓 진술을 한 것 자체는 맞는데, 제시문에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다. 원작을 참고하면, 오장군이 거짓 진술을 한 이유는 오장군의 상관이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려서, 오장군이 그것을 진실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 ② 오장군은 고문을 두려워하며, 강인한 인물은 아니다.
- ③ 오장군을 위협하기 위해 인형을 때린 주체는 정보장교가 아니다. 정보장교는 이를 명령했을 뿐이다.
- ④ 정보장교는 오장군이 스스로를 ‘사령관실 소속’이라고 밝히자 놀란다. 놀라려면 몰라야 하므로, 중요한 정보 자원임을 예상했다고 볼 수 없다.

30. ⑤ #훈제청어

정답 해설

- ⑤ 회곡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데, 싹 다 훈제청어이다. 갈등의 여러 원인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지문에 나타나는 갈등은 외적 갈등이며, 그 원인이 여러 가지라는 표현도 이상하다. 이 때문에 인형이 다의적인 의미로 이어진다는 표현 역시 문제가 된다. 참고로, 제시문 자체는 2007 MEET 언어추론 지문을 가져왔다. comment 하나만 더 하자면, 회곡이나 시나리오 같은 경우 회곡이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경우가 있다. 2008 MEET 언어추론에 출제된 회곡 세트가 그랬다.

오답 해설

- ① 내적 공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관객들로 하여금 침을 삼키는 소리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추론하도록 하는 모습이다. 회곡의 특징이다.
- ② 회곡에서는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서술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건이나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
- ③ 대답을 짧게 끊어서 하는 장면은 오장군이 심문에 저항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정보를 제공하나, 그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④ 회곡이나 소설 모두 서사를 기본으로 하는 장르이므로, 갈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심문 중단을 갈등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해하는 것은 충

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31. ④ #의사소통

정답 해설

④ 이 선지는 ③번 선지와 비교하면 좋다. 내적 갈등도, 소신도 없는 인물이 오장군이다.

오답 해설

- ① '거기 제대로 짜어들어 있'다는 표현은 당위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진수의 생각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자는 진수의 사상은 거기 제대로 짜어들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 ② 여기자의 사상이 크낙한 관용이 부재한다고 비판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입증의 뜻은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한다는 것인데, 윗글에서 진수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한 적이 없다.
- ③ 오장군은 소신이 없다. 소신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 ⑤ (가)의 여기자는 여전히 자기를 중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하려는 태도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32~34] (가) 병원 (현대시) / (나) 절정 (현대시)

연계

수능특강 98p <병원>

수능완성 149p <절정>

같이 보기

2017 9평 <병원>

2018 LEET <비극적 황홀>

32. ④ #문학개념

정답 해설

④ 청자가 설정되지 않은 발화이므로 독백이다. 정서적 반응을 제시한다는 서술은 표현상 특징 문제에서 거의 절대선지이다. 틀릴 수가 없다.

오답 해설

- ① (가)에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이 있다. 다만 이를 통해 상황의 비극성을 완화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경우 유사한 시구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가)의 살구나무는 계절감을 드러낸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에는 확실하게 계절감이 드러난다. 다만 (나)에는 이를 이요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는 34번 문제의

<보기>와 함께 보면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 ③ (가)와 (나) 모두 시선의 이동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애초에 외적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있는 글들이다.
- ⑤ (가)에는 색채 이미지(하얀색)가 사용되었으나,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 역시 역동성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다.

33. ③ #일상언어

정답 해설

③ 지문에 따르면 화자는 ㉠의 병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위해서는 대상의 병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야 가능하다. 화자에게 희망을 주는 소재라는 서술 자체는 적절하다. EBS 수특사용설명서의 입장이다.

오답 해설

- ① 문학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해석인지 허용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흰 옷은 병원의 환자복을 환기하고, 하얀 다리 역시 병약한 환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 ② 화자가 ㉠을 동경한다는 사실은 ④번 선지의 내용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그 자리에 누워보는 것은 이에 따른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조금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이 선지 내용은 EBS 사용설명서의 입장이다.
- 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소외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상언어적으로 풀 수 있다. 참고로, 이 선지 내용은 EBS 사용설명서의 입장이다.

34. ⑤ #능동수동 #매핑

정답 해설

⑤ 화자가 '휩쓸려 온' 것은 화자의 의지가 아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므로, 선지와 같이 능동적인 행위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없다. 비극적 상황과 비극적 상황에 대한 반응은 구분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아픔과 괴로움을 연결시켜 <보기>와 함께 이해하면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해석이다.
- ② <보기>에 따르면 이육사와 윤동주는 사유와 관조 또는 명상의 산물로 자각된 비극을 표현한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사유하고 명상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을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만한 해석이다.
- ③ <보기>에 따르면 이육사와 윤동주가 처한 상황은 비극적이다. 이를 인식한 시인은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 ④ <보기>에 따르면 이육사는 이상주의자적 혁명가의 면모를 보인다. 제시된 작품에서 화자는 한 발 디딜 곳조차 없는 곳에서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선다. 이 자체가 하나의 이상주의자로서의 면모라고 볼 수 있다.

[화법과 작문]

[35~37] 로코의 바실리스크 (화법)

35. ⑤ #내용일치

정답 해설

- ⑤ 3문단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혹시 파스칼의 내기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손을 들어보라고 하고 있다. 이는 배경지식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이다.

오답 해설

- ① 발표 준비 과정을 말한 적 없다.
- ② 내용 요약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
- ④ 발표 내용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은 중간 '이 전제를 이해했는지' 묻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발표를 마무리하지는 않았다.

36. ③ #발표계획

정답 해설

- ③ 용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물으며 발표를 시작했다.
- ② 발표 주제인 로코의 오벨리스크 논증을 말하기 전, AI의 발전이 인간에 유익한지 유해한지에 대

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 ④ 로코의 오벨리스크 논증에 대한 도표를 제시했다. 이는 시각적 자료라고 볼 수 있다.
- ⑤ 파스칼의 내기 논증을 설명하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만들어 제시하였다. 이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7. ⑤ #범주

정답 해설

- ⑤ 학생 2와 학생 3 모두 유사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선지 표현을 빌리자면, 추가적으로 탐구할 만한 질문들이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1이 지적한 것은 발표 내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신뢰성과는 무관하다.
- ② 학생 2는 유용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③ 일상적 경험을 떠올린 것은 학생 3이 아니라 학생 2이다.
- ④ 학생 2가 지적한 것은 로코의 바실리스크 논증이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발표자가 로코의 바실리스크 논증에 대해 비판을 제시한 것은 맞는데(그것이 파스칼의 내기와 유사하다는 것), 그 비판에 대한 지적이 아니다.

[38~42] 스마트 기기 교칙 (화법 작문 융합)

38. ③ #대상

정답 해설

- ③ ⊖이 비판하는 것은 상대방인 학생3이 제시한 대안이 아니다. 학교의 조치 자체에 대한 비판이다.

오답 해설

- ① 학생1이 언급한 학교의 교칙 개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② 스마트 기기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학생1의 발언에 대해, 학생3은 그 사례로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④ 학생2가 스마트 기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자, 학생1은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있다.
- ⑤ 학생2는 학생1의 사실관계 정정에도 불구하고 과한 규제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39. ③ #범주

정답 해설

③ 나머지 부분은 다 적절하다. 다만 (가)나 (나)에 제시된 쟁점이나 작문 상황은 스마트 기기 소지 금지가 아니라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에 관한 것이다. 소지와 사용은 구분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가)에 교칙 변경이 주 대화 논제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나)의 제안 배경에 그대로 언급되었다.
- ② (가)의 학생2는 직접적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의 손해가 이득보다 크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에는 실제 학습 용도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 ④ (가)에서 직접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던 학생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이는 (나)의 예상 난점에 그대로 제시되었다.
- ⑤ (가)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해 학부모와 교사의 우려가 있다고 제시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나)에는 예상 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40. ⑤ #양화사

정답 해설

⑤ (가)의 대화에서는 난점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설문 조사를 통해 보충되어 (나)에 구체적 방안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전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넘는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교생과는 다르다.
- ② (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전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 뿐이다. 이것만으로는 전교생이 스마트폰을 쓴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스마트 기기를 학습에 사용하여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나)에는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 ④ (나)에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41. ④ #내용일치

정답 해설

④ 초고에는 캠페인의 제세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사회적 문제로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초고에 그대로 제시하였다.
- ②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초고에 명시되어 있다.
- ③ 난점의 해결 방안으로 차단 프로그램 설치와 캠페인이 제시되었다. 2개이다.
- ⑤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오직 학습 목적으로만 스마트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42. ⑤ #요건

정답 해설

⑤ 학생들이 주체임이 명시되어 있고, ‘스마트 기기를 스마트하게 사용’이라는 표현으로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었다.

오답 해설

- ① 학생들이 주체임은 명시되었으나, 반복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② 학생들이 주체라는 사실은 명시되지 않았다. ‘스마트 기기’라는 동일한 표현 반복은 존재한다.
- ③ 학생들이 주체라는 사실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 표현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학생들이 주체라는 사실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 표현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43~45] 화이트 해커 (작문)

43. ① #범주

정답 해설

① 해커가 갖춰야 할 역량이나 능력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② 화이트 해커는 특수 분야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정보화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그 입지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 ③ 화이트 해커가 되기 위해서는 주로 프로그래밍

능력, 네트워크 정보보안의 지식,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제시되었다.

- ④ 화이트 해커는 개인적으로는 의뢰인 기기의 바이러스 제거를 하고, 사회적으로는 안전망 유지 등의 역할을 함이 제시되었다.
- ⑤ 해커라는 단어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악의적인 의미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악의적이지 않은 화이트 해커도 있음을 초반부에서 제시하고 있다.

44. ① #요건

정답 해설

- ① 4문단에서 제시하는 것은 화이트 해커의 입지가 점점 넓어지고 채용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잘 제시되었고, ‘경찰관’이라는 표현으로 비유적 표현이 제시되었다.

오답 해설

- ② 비유적 표현이 제시되지 않았다.
- ③ 이 내용은 4문단의 핵심 내용이 아니다.
- ④ 비유적 표현이 제시되지 않았다.
- ⑤ 이 내용은 4문단의 핵심 내용이 아니다.

45. ③ #자료

정답 해설

- ③ ㄷ에는 크래커와 화이트해커의 차이점만 나타날 뿐, 공통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ㄱ-1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해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제시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ㄴ의 인터뷰에서는 수학적 기술적 역량이 있어야 관제사가 될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
- ④ ㄱ-2는 화이트 해커의 인지도가 아직 낮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ㄴ은 화이트 해커 안에도 다양한 직종이나 분류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⑤ ㄴ에는 화이트 해커의 분류 중 하나인 보안 관제사가 제시되었다. ㄷ은 화이트 해커가 실제로 활약한 사례에 해당한다.

[언어와 매체]

[35~36] 중세 국어의 겹자음과 겹모음 (문법)

해명문

중성의 합용도 합용병서로 보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미래엔 “언어와 매체” 교과서 197쪽에서 ‘합용병서’를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글자.”라고 정의하며 ‘자음’에 한정하여 서술하였고 기출은 아니지만 2013년과 2015년 EBS수능완성 실전편 B형에서도 ‘합용병서’를 ‘자음’에 한정하여 서술하였음. 이를 따라 자음의 합용과 모음의 합용을 따로 구분하는 견해로 지문을 썼음을 참고 바람.

2013년 수능완성 국어 B형 실전편 문제: “나란히 쓰기는 초성자들이나 종성자들을 함께 쓸 때 가로로 나란히 쓰라는 규정인데,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각자 병서,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합용 병서라고 했다.”

2015년 수능완성 국어 B형 실전편 정답과 해설: “합용 병서란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방법을 뜻한다. ‘ㄱ, ㄴ, 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5. ⑤ #갯수

정답 해설

- ⑤ ‘ㄱ’은 반모음 ‘j’를 포함한 ‘k’에 ‘i’가 상합된 | 상합자이므로 반모음 ‘j’가 두 개 있는 삼중모음이다. 따라서 반모음이 두 개 들어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상형과 가획의 원리 그리고 이체자로 이루어진 것은 자음에만 해당하며, 모음은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와 기본자를 조합한 초출자와 재출자로 이루어졌다. 초출자와 재출자는 가획의 원리가 아니다.
- ② 연서인 ‘ㅃ, ㅄ, ㅆ, ㅈ’는 주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쓰였지만 ‘ㅃ’는 고유어 표기에도 쓰였다.
- ③ 중세국어 시기 ‘ㅅ’은 쓰이지 않았다. 『훈민정음』(해례본)에서 제시한 ㄱ계 합용병서 중 ㅅ은 목록에 없다.
- ④ ‘ㄴ’은 양성모음인 ‘n’과 음성모음인 ‘l’이 결합한 이자합용으로 양성이라는 같은 성격을 공유한다.

36. ⑤ #자료분석

정답 해설

⑤ ㉠에 쓰인 ㉡은 ‘ㅈ(쫘)’이다. 그러나 어두자음군인 ‘ㄴ계 합용병서’나 ‘ㄷ계 합용병서’와 달리 ‘ㄷ계 합용병서’는 된소리이므로 ㉠의 ㉡을 통해 중세국어에서는 어두에 두 자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에서 ㉣은 ‘뵈’에 보이는 ‘뵈’ 하나이고 ㉤은 ‘베’, ‘베(뵈)’, ‘내(내)’로 총 셋이다. 이 셋은 1상합자이므로 반모음 ‘j’로 끝나는 모음이다.
- ② ㉠에 해당하는 ‘oo’은 한 번, ㉡에 해당하는 ‘나’는 한 번, ㉢에 해당하는 ‘기’는 한 번 ‘니’는 두 번, ‘기’는 두 번 쓰였으므로 ㉣에서 ㉠~㉤이 쓰인 횟수는 7번이다.
- ③ ㉠에 쓰인 ㉡은 ‘뵈(뵈)’이다. ‘뵈’는 한자 ‘飶(요)’의 음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고 뵈를 제외한 세 연서자들은 고유어 표기에는 쓰이지 않았다.
- ④ ㉠에는 ㉡은 ‘ㄹ(뵈)’이 있고, ㉢은 ‘니(희)’, ‘베(레)’, ‘베(뵈)’가 있다. ㉠과 ㉣, ㉤은 보이지 않는다.

37. ③ #통사론

정답 해설

③ ㉢은 ‘먹음직스러운’이라는 관형절이 안긴 문장이다. 겹문장이므로 2점을 더하고, 관형절이 안겼으므로 1점을 더하고, 안은문장에 관형사 ‘새’가 쓰였으므로 1점을 더해야 한다. 따라서 점수를 모두 더하면 4점이다.

오답 해설

- ① ‘대놓고’는 부사, ‘얘기하고는 한다’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성이므로 이어진문장이 아니라 홀문장이다. 따라서 점수를 모두 더하면 1점이다.
- ② ‘제자가 성공하기’라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점수는 6점이 맞지만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 아니다.
- ④ 관형사 ‘헌’이 쓰였다. 관형사가 쓰였고 ‘내가 입던’이라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므로 점수를 모두 더하면 4점이다.
- ⑤ ‘치타가 달리듯이’라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고, 안은문장에서 부사나 관형사는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점수를 모두 더하면 5점이다.

38. ⑤ #음운론 #로마자표기법

같이 보기 2010 MEET 언어추론 4번

정답 해설

⑤ ‘땅꼬마가’의 ㄸ과 ㄱ은 음운 변동의 결과로 된소리가 된 것이 아니므로 ‘tt’와 ‘kk’로 표기하여야 한다. 또, ‘가’의 ㄱ은 모음 사이에 있으므로 표기 일람을 따르면 ‘ttangkkomaga’가 된다.

오답 해설

- ① ‘옥꿍으니’의 발음은 [옥끄르니]이고 표기는 ‘ukkkeureuni’가 맞다. 하지만 ‘꿍으니>끄르니’의 변화는 자음군단순화가 아니라 ㅎ 탈락으로 인한 것이다.
- ② ‘뎃물치고’는 [뎃무치고]로 발음되므로 ‘deonmuchigo’로 쓰는 것은 맞지만, 이때 ‘ㅅ→ㄷ’의 교체(평폐쇄음화), ‘ㄷ→ㄴ’의 교체(비음화), ‘ㅌ→ㄷ’의 교체(구개음화)가 일어나므로 교체는 세 번 일어난다.
- ③ ‘안따’는 교체(평폐쇄음화)로 ‘안따’가 되고 ㄷ 뒤의 ㄷ이 ㄸ으로 교체(된소리되기)되어 ‘안따’가 된 후 자음군단순화(탈락)가 일어나 [안따]가 된다. 그러나 제1항의 ‘붙임’에 의하면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다’의 ㄷ은 모음 앞에 있으므로 ‘anda’로 적어야 한다.
- ④ ‘설릭는’은 ㄴ첨가와 유음화, 비음화가 일어나 [설링는]으로 발음되며 첨가가 한 번, 교체가 두 번 일어났다. 그러나 표기 일람의 ‘붙임’에 의하면 ㄴㄴ은 ㄴ으로 적어야 하므로 ‘seollingneun’으로 써야 한다.

39. ④ #화용론

같이 보기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4번

정답 해설

④ 인용된 발화는 어제 말한 것이고 어제 시점에서 내일인 것이므로 ‘어제’가 아니라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전체 문장의 화자는 ‘나’이고 간접인용된 발화는 철수가 말한 것이므로 ‘나의’는 재귀 대명사 ‘자기’를 사용한 ‘자기의’로 바뀌어야 한다. 철수가 자신의 몫을 남기라고 한 곳은 화자(‘나’)에게 먼 장소이므로 ‘거기’로 바뀌어야 한다. 직접 인용의 명령형 ‘남겨라’는 간접 인용에서는 어간 ‘남기-’에 ‘-(으)라고’가 붙어야 하므로 ‘남기라고’로 바

꿔야 한다.

[40~43] 선크림 (매체)

40. ④ #수단목적

정답 해설

④ 분할된 화면이 제시된 것은 맞는데, 그 목적이 출연자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LIVE라는 표현을 통해 실시간 방송임이 나타나 있다.
- ② 실시간 방송이 다루는 주제 자외선 차단제가 자막으로 제시되었다.
- ③ 대화창이 잘 나타나 있다.
- ⑤ 대화창에 관리자가 링크를 전송하였다.

41. ④ #수단목적

정답 해설

④ 아이코는 자외선 차단제가 화학적 차단제임을 언급했고, 습기나 유분에 의해 씻김을 언급했다.

오답 해설

- ① '수제비'는 노을을 관찰했다는 표현을 통해 일상적 경험을 언급했지만, 이를 통해 햇빛의 강도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간접적으로 제시했다고는 볼 수 있다.
- ② 국대는 기본적인 습도와 자외선의 관계만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위도와 습도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③ 국대는 선크림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 ⑤ 찬은 여러 종류의 선크림을 언급한 적 없다.

42. ① #블로그

정답 해설

① 이미지가 제시되었다.

오답 해설

- ② 글자를 기울인 것은 맞지만, 이는 방송 제목을 기울인 것에 해당한다.
- ③ 소제목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④ 첨부 파일의 내용은 혼합 선크림에 대한 것이지, 자외선 강도를 가늠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아니

다.

⑤ 자외선 강도를 가늠하는 방법과 선크림의 특징이 나타난 방송 부분을 언급했다. 이는 자외선 차단 효과의 차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43. ② #언어매체융합

정답 해설

② 여기서 쓰인 것은 연결 어미 '어도'이다. 참고로, '도'는 연결 어미가 아니라 보조사이며, 의미 자체가 다르다.

오답 해설

- ① 눈을 뜨는 데 애를 먹은 이유는 고층 건물에 햇빛이 비쳤기 때문이다.
- ③ '하얗-'에 전성 어미 '-니'이 결합되었다.
- ④ '군요'는 종결 어미이다. '요'와 햇갈리지 않게 조심하자.
- ⑤ 과거형 '올려 두었다'를 사용하여 이미 방송이 업로드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44~45] 만화 동아리 행사 (매체)

44. ② #양상

정답 해설

② 슬비는 처음 시점에 대화방에 있지 않았으므로, '다시'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세하는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공지사항을 등록했다.
- ③ 세하 옆에 왕관 표시가 되어 있다.
- ④ 유리의 공지사항 등록 요구에 대해 세하는 체크 표시 이모티콘을 사용했다.
- ⑤ 일상적으로 보는 카카오톡과 같은 기능이다.

45. ① #매체

정답 해설

① 구분선을 통해 구분하고 있다. 올해 9평의 내용을 반영해서 만들어 보았다.

오답 해설

- ② (나)에는 실시간 인기 투표 순위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
- ③ 슬비의 제안은 수익금 기부 현황을 별도의 화면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장터의 물품 안내 페이지

지가 아니다.

- ④ 도표가 아닌 영상이 추가되었다.
- 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표현은 제시되지 않았다.